



평화 되찾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이 1일 극적으로 타결돼 금호그룹과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은 평화를 되찾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극적 타결

“공멸 막자” 공감 파업 풀고 조업 복귀...회생 청신호

전면 파업 돌입으로 파국을 향해 치달던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1일 극적으로 타결,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협상을 시작한지 2개월만이다. 금호그룹 워크아웃 사태 이후 불투명하던 지역경제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8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 12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에 이어 이날 제2차 본교섭을 열어 기본급 10% 삭감 및 5% 반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30분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은 협상 타결과 함께 조업에 복귀해 공장가동이 정상화됐다. 2일로 예고됐던 정리해고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중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워크아웃 동안 임금 동결 ▲광주공장 12.1%, 곡성공장 6.5% 생산량 증대 ▲597명 단계적 도급화 등이다.

또 경영상 해고 대상자 193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준수와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해고를 유보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노사평화 공동선언문’에도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제18차 교섭에서 합의한 적정인원(T/O) 축소와 사전 작업 수당 폐지, 유급일 규정 등 모두 38개 조항도 포함됐고, 고용안정 등 노조 측이 제시한 별도 요구안도 상당 부분 수용됐다.

노사협상 타결로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노사간 자율 합의에 따라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을 높였고 채권단의 긴급 자금도 지원받게 됐다. 긴급 신규자금과 신용장이 개설되면 다소나마 체불 임금이 해결되고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 천연고무의 원활한 수급으로 공장가동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된 제2차 교섭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내용 때문

에 결렬되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위기가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멸은 막아보자’는 공감대 속에 결렬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20분 협상을 재개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이를 위해 많이 부족하지만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 협상대표인 황동진 부사장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엔 합의한 만큼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일과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오는 7~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北함정 공격후 도주 판단해 속초함 76mm함포 발포했다”

국방부 의혹 해명

천안함 침몰 1주일째인 1일 국방부는 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인근에 경비 중이던 속초함은 북한의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하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함포로 격과사격을 가했으나 레이더 분석결과 ‘새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6면>

국방부는 또 사고 당시 잠수함(정)과 반잠수정 등의 북측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침몰이 일어난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의 침몰 당시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오후 9시21분 58초에 해저에서 진도 1.4-1.5의 지

진파를 탐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침몰사고 시간을 26일 오후 9시22분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에서 2함대로 보고한 시간(오후 9시28분)과 열상 감시장비(TOD)로 녹화된 시간(오후 9시29분), 지진과 발생시간 등을 종합할 때 그같이 판단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발포한 경위와 관련, 26일 오후 10시56분 사격통제 레이더 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으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북한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함·대공방어가 가능한 주포인 76mm 함포를 발포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새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천안함의 항로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알려진 것처럼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해 경비 작전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원인 분석 과정에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말씀해달라”며 천안함 사고 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경선 톨컷 미팅 후보 경력표시 놓고 이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강운태·이응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 후보 측 대리인이 최재성 민주당 중앙당 공심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첫 톨컷 미팅(경선 세부규정 협의)을 가졌으나 후보자 간 또는 후보자와 중앙당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우선 강운태 의원 측이 당원 여론조사 상황을 녹음한 기록(CD)을 모 든 후보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 간사는 “기록은 소송 대비용”이라며 거부했다. 또 “당원여론조사 시 당원 여부 꼭 물을 필요가 있느냐”와 ‘조 작 및 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3개)을 더 늘리자’는 강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최 간사는 “당원명부가 확실치 않아 불가피하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각각 밝혔다.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시 후보자 소개 방법, 중앙당 공심위 측은 ‘20자 이내의 대표 경력 2가지로 하되 한시 적·임시적 기구나 경력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 란 경력은 불가하지만 정동채 예비후 보 측에서 애용하는 ‘김대중 총재 비 서실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강운태·이응섭 의원 측의 이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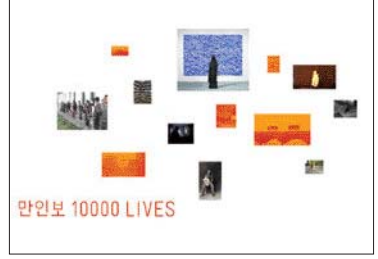
여론조사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 고 답했을 때 1회 재질문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 측은 “암박성 질문으로 인지도 높은 후보에 유리하다”며 반대했으나 최 간사는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후보자 직 접 참여하는 톨컷 미팅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내의 대표 경력 2가지로 하되 한시 적·임시적 기구나 경력은 제외한다’ 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 란 경력은 불가하지만 정동채 예비후 보 측에서 애용하는 ‘김대중 총재 비 서실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강운태·이응섭 의원 측의 이의를 받았다.

여론조사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 고 답했을 때 1회 재질문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 측은 “암박성 질문으로 인지도 높은 후보에 유리하다”며 반대했으나 최 간사는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후보자 직 접 참여하는 톨컷 미팅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8회 광주비엔날레

홍보포스터·로고 발표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 7일)의 홍보포스터와 심볼, 로고(사 진) 등 EI(Event Identity)가 1일 발표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8 회 비엔날레의 주제인 ‘만인보’를 상징하는 다양한 사람의 삶과 예술 이 미지를 담은 심볼·로고와 포스터 등 을 공개했다.

전문 디자인업체인 텍스트(대표 정진열)사에 의뢰해 개발된 이번 EI 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출품자들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미 지들의 조합을 통해 관람객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고,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추기 위해 단순미를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명품의 가치에 마칩표를 직대
수업 프로그램
수업 대상: 초등학생
대상: 초등학생
문의: 1688-3800